

# 한국에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프랑스 “부모학교”의 분석

## A study of french “Ecole des Parents” for perspective model in korean parent education

강사 정미리  
충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Instructor. Jeong, Mi Ree  
Dept. of Home Managent, Chungbuk Natl. Univ.

### Abstract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develop parent education methodology by analysing “École des Parents” of France. To study this subject we approach by following three methodes. Firstly, we examined bibliographes to find out motivation of initiative caused from hystological and sociological circumstance. Secondly, to analyse chronological developement and modification of “École des Parents” we interviewed with three periods of persons : founder, developer and actually working animators. In addition, we riviewed three hundred eighty volumes of École des Parents, from first jurnals to october, 1993. Thirdly, this study were approached by participant observation in actual activities, and by analyse statistical records and subject of articals. In results, we noticed following caractors working in french parent education system. All the regional “École des Parents” are alined with “Fédération Nationale des Écoles des Parents et des Éducateurs”(F.N.E.P.E.) in educational polish but activities and methodes of education are independant with F.N.E.P.E., and in most different regional “École des Parents” focussed the educational programes to the middle class families in economic point of view. these programes adjust very rapidly systematicaly to social requirment due to succeeded intensive research. Mordern programs tend to contain all members of family in stead of targeting only maternal members. Methodes of education by lectures and speechs only to deliver information also replaced by discussion, forum and groop animation to induce self-correction. We propose that the systems of FNEPE can be ideal models to solve many actual problems facing in Korean parent education systemes.

### I. 서론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부모교육을 논하기 시작한지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특히 1982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신생 이민국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발한 여러 가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우리 나라에 많이 소개되었다.

반면에, 늙은 대륙인 유럽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아주 미미하게 소개되어 있다. 특히 한국

처럼 오랜 전통을 지닌 나라에서는, 전통이 깊고 보수적인 특성을 지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부모교육 기관들과 프로그램들이 자생되었는가, 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프랑스의 “부모학교”(École des Parents et des Éducateurs)를 연구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에, 주로 알자스(Alsace)지방의 부모학교들에서 집중적으로 참여관찰, 인터뷰 등을 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모학교들과는 파리(Paris)에 소재한 F.N.E.P.E.(Fédération Nationale des Écoles

des Parents et des Éducateurs)와 F.I.E.P. (Fédération Internationale pour l'Éducation des Parents)의 정기적인 심포지움을 통하여 관계를 맺으며 자료수집을 하였다.

부모학교를 분석하기 위해서, 첫째, 그 기관을 탄생시킨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문헌조사를 하였고, 둘째, 그 기관의 변화 및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초기, 중기, 현재의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하고, 또 1948년에 그 창간호가 나온 부모학교의 발행자인 École des Parents(부모학교)를 1993년 10월호까지 약 380권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셋째, 부모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을 참여관찰, 통계기록 참고, Ecole des Parents의 기사 주제 분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 II. 프랑스 부모교육의 선구자들

프랑스에서는 말할 나위없이 루소(Jean - 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영향이 결정적이었고, 복합적인 반향을 야기시킨 그의 작품은 프랑스혁명이 그 정치적 결말이었던 18세기 철학사조의 총체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A. Isambert(1968, p.18)는 "정치적 혁명이 군주제의 절대적 권위와 지배계급을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근본적으로 외부의 권위와 교육자의 능능함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주의적이고 비사회적인 정치체도를 대체시켰다. 선언되고, 또 모든 구속으로부터, 심지어는 사회적인 구속으로부터조차도 보호하려는 것은 바로 인간 개개인의 권리들이다. 게다가 루소는 아동을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은 모든 사회적 영향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성의 자유로운 발달인 것으로 여겼다" 고 지적했다.

에밀(Emile, 1762)의 서론에서 루소는 어머니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때놓지 않았고, 부모들이 그들의 의무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부모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에밀은 그 시대의 식견있는 계층에게 매우 구체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왕비들은 자녀들에게 모유를 먹이기 시작하고, 상류사회의 부모들은 아들들을 기숙학교에 보내는 것과 딸들을 수녀원에 보내는

것을 단념하거나 특수 가정교사들의 도움을 얻어 자녀들의 지적, 도덕적 교육을 위해 스스로 연습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에밀의 출판 2년후에 마담 드 보몽(Mme de Beaumont)의 둘라르셀 후작으로부터의 편지들(Les lettres du marquis de La Roselle, 1764)이라는 책 속에서 에밀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1777년에 베르나르탱 드 생피에(Bernardin de Saint-Pierre)는 브장송 아카데미(Académie de Besançon)의 한 웅변대회에서 "남성들을 좀더 낮게 하기위해서 여성교육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을 통해서 루소의 생각을 이어받았다. "인생의 부담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여성이라는 존재는 아동기의 부담을 혼자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은 탄생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첫번째 사랑과 증오의 감정은 기쁨과 고통의 첫 감동 때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미래의 어머니들의 교육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데에 동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재인용, V.Isambert - Jamati, 1958, pp. 37-38).

1782년에 도를레앙 공작(duc d'Orléans)자녀들의 가정교사였던 마담 드 정리스(Mme de Genlis)는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관한 책을 두 권으로 출판하였다. 아델과 테오도어(Adèle et Théodore)는 10판까지 계속 출판되었고, 몇 개의 외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이 책에서는 부모역할은 특별한 연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발견할 수 있고, 저자는 신뢰, 정서, 용기를 북돋는 태도 등을 권하고 실질적인 충고를 해준다.

철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와 가정에서의 절대적 권한에 대항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라는 생각은 자연적으로 아동으로서의 권리라는 생각을 파생시켰고, 그 흔적은 백과사전에서도 찾을 수 있고, 혁명법에서도 구체화되었다. 1790년에 법은 전통적인 아버지의 권한에 중지부를 찍었고, 이는 자녀를 보호할 부모의 의무로 대체되었다. 1792년에 이혼이 부부 동등하게 확립되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말해서 남편의 절대적 권한이 폐지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이내 곧 제 1 제국 시에 제작된 민법에 의해서 맹렬히 비난받았다. 남편과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 다시 등장

하였고, 아내의 법적인 무력함, 자녀의 결혼에 대한 아버지의 승인, 필요시 공적인 권한의 도움으로 징계, 혹은 부속 등이 가능하였다. 아동은 다시 소유물과 같이 취급되었는데 아버지에게 그같은 권한을 준 것은 바로 법률이었다. 그것은 본래부터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것이었고, 사회적 기능상 토론이 가능하고, 개량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거기에 바로 차후의 모든 발전의 싹이 있었다.

19세기 초, 개혁의 시대에 프랑스에서 출판된 서적들은 또 다시 매우 전통적인 성향을 띠었다. 부르조와지의 호사스러운 시기에 꽃을 피운 책들 중의 하나로, 7월 왕국 시의 어느 익명의 저자에 의한 자녀의 초기교육에 관한 두 젊은 엄마들의 충고(Conversation de deux jeunes mères sur la première éducation des enfants)라는 책을 들 수 있다. A.Isambert (1968, p.25)에 의하면 이 책은 “부모들의 책임과 그들 자신의 교육받을 필요성을 선언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들을 들면서 솔직하고 이해심 있는 경향의 교육적 충고를 했다”. 얼마 후, 제 2 제국 하에서 매우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부모들에게 충고하는 책들이 출현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가정교사 (La Mère institutrice, 1835년부터 발간), 가정의 주간(La Semaine des familles, 1858), 여성과 가정(La Femme et la famille, 1867), 어머니들의 조언자(Le Conseiller des mères) 등의 여성잡지들이 출현했다. 이 잡지들은 주로 모드, 교육적 충고, 윤리 등을 다루었는데, 1860년대와 1870년대의 프랑스 서점의 도서목록을 보면 33개의 이런 종류의 잡지들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 장르는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상류사회 여성들의 것이거나, 위생에 관한 충고와 심리학적인 주의들을 혼합한 의사들의 것이었다. 그것들은 혁신적이고 때로는 용기가 있지만 전통의 범주를 그리 벗어나지는 못했다.

훗날 아메리카에 공동체 부락의 창조를 야기시킨 에티엔느 카베(Etienne Cabet)의 철학 소설 이카리 여행(Voyage en Icarie, 1842)에서는 여러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특히 임신기간 동안 여성들에게 강의를 듣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898년부터 교육연맹(Ligue de l'Enseignem

-ent)의 지지로 학교의 활동범위 내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부모서클이 생겼다. 특히 초등교육 장학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클럽”이나 “부모교사들의 서클”과 같은 형태의 그룹의 형성을 적극 권장했는데, 그것들은 1903년에 “부모교사들의 국가연맹”이라는 기구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었다. 이 기구는 가정교육(pédagogie familiale)에 관련된 학문적 개념들을 퍼뜨리면서, 가정을 좀더 나은 교육의 장소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에 파리(Paris)의 천주교성당의 보호 하에 중하류층 부모들을 위한 “가정교육 서클”이 생겼고, 19세기 말에 눈에 띄는 도약을 한 “후원”운동은 청년들을 위한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성원들이 특히 여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래의 어머니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연수를 자주 제공했다. 그리고 이같은 일들은 가사학교에 의해서 지속되었다.

보르도(Bordeaux)에서 1897년부터 이미 운영되고 있었던 소녀들을 위한 한 학교가 마담 몰바이스(Mme Moll-Weiss)에 의해서 파리에 이전되었는데, “어머니학교”(Ecole des meres)라는 이름 하에 몇몇 대학인들에 의해 지원되었고, 강의 프로그램은 육아 뿐만 아니라 아동심리도 포함되었다.

그 시기는 또한 가정과 교사들의 연결을 시도하는 고등학교의 학부형회가 생겨난 시기였다. 로쉬(Roches)학교의 설립자인 베르티에(G. Bertier)는 1909년에 교육(L'Éducation)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이 잡지는 특별한 교사들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아동심리학과 교육학의 진보에 관심을 갖게하기 위해서 발간되었다. 1935년부터 이 잡지의 발간은 베르티에와 1929년에 프랑스에 “부모학교”(Ecole des Parents)를 설립한 마담 베린느(Mme Vérine)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A. Isambert(1968, p.27)가 말한 것처럼 “교육은 초창기의 부모교육에의 발기와 현재 서유럽의 부모교육 운동의 근원이 된 마담 베린느의 발기 사이의 끈처럼 나타났다”. “마담 베린느의 발기는 사회적 관념에서 보면 예전의 부권의 원칙과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자율성의 관념 사이에서 일종의 화해의 노력을 표현했고, 또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도덕교육을 시키는 전통적인 방법과 인본주의적 교육을 시키

는 능동적인 방법들 사이에서의 화합을 표현했다”(ibid., p.33).

### III. 프랑스의 부모학교의 탄생 및 발전 과정

#### 1. 부모학교의 탄생부터 1946년까지

1920년대에 프랑스에서 “부모학교”라는 아이디어가 하나의 형태로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는 프랑스에서 급격한 교육적 동요의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마담 베린느의 내부에서는 두 가지 수준의 사고와 행동이 만나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하나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 전통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연구에 적용되는 인문과학의 새로운 지식습득을 중요시하는 “능동적 학파”(École active)에서 주도하는 “새교육”(Éducation nouvelle)이었다.

이 “새교육”에의 생각은 아동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과 함께 발전되었고, 마담 베린느는 베르티에와 함께 “교육”이라는 잡지발간에 참여함으로써 위의 새로운 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이 “새교육”의 토대를 가진 몇몇 조류를 분류해 보면:

- 룩소가 그 대표자였고, 엘렌 키(Ellen Key)에 의해 지속된 “신비주의적”(쿠지네의 표현) 조류;
- 지체아 전문가들인 이파르(Itard), 서갱(Seguín), 몬테소리, 드크롤리 등이 속한 의학 적 조류;
- 듀이(Dewey), 스탠리 홀(Stanley Hall), 다수의 독일 저자들을 들 수 있는 철학적 조류;
- 에쉬호른(Aischhorn), 피스테르(Pfister) 등을 포함하는 정신분석학적 조류;
- 무정부주의, 자체관리주의의 경향을 보이고, 미국식 민주주의에로의 교육적 전환을 시도하려 하는 사회정치적 조류;
- 심리학, 실험교육학 등에 기초한 학문적 조류 등을 들 수 있다.

부모학교의 초기 협력자 중의 한 사람인 샤를랭(F. Châtelain)은 그의 저서 새교육 입문(Initiation à l'éducation nouvelle, 1969)에서 이 새교육 운동의 교육적 지침을 10 가지 중

고로 요약했다:

1. 올바른 아동관을 갖기,
2. 아동의 활동을 유도할 것,
3.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도자”일 것,
4. 아동의 깊은 흥미로부터 시작할 것,
5. 학교를 생기발랄하게 이끌어갈 것,
6. 교실을 아동들의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 것,
7. 손으로 하는 활동과 정신적인 일을 연합시킬 것,
8. 아동의 창의력을 개발시킬 것,
9. 각자의 능력에 맞게 제공할 것,
10. 외적인 규율을 자유롭게 승인된 내적 규율로 대체할 것.

“부모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생각은 1928년에 마담 베린느가 파리에서 성교육에 관한 강연에 참석하던 도중에 하게 되었다. 그녀는 여류작가이자 능동적 학파(Ecole Active)의 열성적인 멤버였는데 정신분석학의 지지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빛을 보였으며, 도덕교육에의 전통적인 경향과 그 당시 새로운 조류였던 심리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적 교육을 접목시키려고 하였다. 그러한 그녀가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녀는 단숨에 많은 지식인들, 대학교수들 및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장 레르미프(Jean Lhermitte), 외이에트(G. Heuyer), 듀블리노(J. Dublineau), 부또니에(J. Boutonnier), 돌토(F. Dolto), 자쵸(R. Zazzo), 모코(G. Mauco), 길맹(E. Guilmain), 샤를랭(R.P. Châtelain) 등과 같은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자 들이 그녀 곁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고, 1928년부터 1939년까지 해마다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였다(예를 들어서 1931년의 테마는 “인성”이었다). 당시의 주요 활동들은 파리 사회박물관에서의 정기적인 강연, 툴루즈(Toulouse)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같은 지방도시의 대학에서의 강연, 사회센터에서의 좌담회, 고등학교 학부형들의 연구서클, 라디오 좌담 프로, 특수 도서관 운영 등을 들 수 있고, 1939년에는 가정교육 전문가들의 교육훈련을 가족수당청(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의 협조 하에 하였다. 이 부모학교의 지부들이 툴롱(Toulon), 마르세이유(Marseille), 니스(Nice), 릴(Lille), 낭시(Nancy) 그리고 리옹(Lyon)에 생겼다. 이 활

동들은 2차대전 초기에 잠깐 중단되었으나, 1942년에 파리의 의과대학에서 위생, 가정관리 방법, 육아법 등의 새로운 과목들로 보육교사들을 위한 강의를 다시 개최하였고,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받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마담 베린느는 이 활동을 하며 부모들을 위한 몇권의 저서들을 내었는데, 어머니 스승(La mère initiatrice, Spes, 1936), 건강 우선(Santé d'abord, Spes, 1941), 새가정(La famille nouvelle, Spes, 1944), 부모들의 십계명(Les dix commandements des parents, Bloud et Gay, 1954), 타인들의 사랑(L'amour des autres, Bloud et Gay, 1954), SOS 위험에 빠진 우리들의 건강(SOS Nos santé en péril, Aubier) 등이 있다.

## 2. 1948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이 기관이 1946년 설립자의 와병으로 인하여 지지부진한 상태에 들어가자 1948년부터 와이에르(G. Heuyer)의 지도와 교육부, 보건부, 국민부 그리고 사회복지기구, 가족수당처 등의 지지 하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장학사, 교수, 교사, 가족협회, 그리고 학부형회 등의 각종 기구들의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었고 두 개의 정기 간행물이 발간되기 시작했는데, 부모학교(L'École des Parents)는 일반 대중을 겨냥하였고, 가족그룹(Le Group Familial)은 특수층에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결과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외에도 부모학교의 활동이 매우 다양해져서 상담, 서신을 통한 충고, 토의그룹, 영화상영과 토론, 라디오와 T.V.프로, 도서편집과 광고물제작, 청소년서클, 결혼준비기간, 그리고 부모그룹, 교사그룹, 사회사업가그룹 등의 지도자를 위한 특별연수 등이 있었다. 부모학교들은 계속해서 샹베리(Chambéry), 트로와(Troyes), 랭(Reims), 액상프로방스(Aix-en-Provence), 메츠(Metz), 바이온느(Bayonne),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툴루즈(Toulouse), 라발(Laval), 클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 님(Nîmes) 등의 도시에 생겨났고, 한 연구그룹이 파리와 지방,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생겼다. 이같은 발전이 있게 한 주동인물은 앙드레 이징베르(André Isambert)와 그의 아내였다.

이렇게 다양각색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서 지부들이 새로 탄생하자 기구의 특성을 차차 정리해야만 했다. 일부는 건강, 위생, 육아 분야에 있어서의 정보와 사회적 행동(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주력하는)을 강조하고, 또 다른 기구들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어떤 기구들은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열중했었다. 또, 일부는 부모의 전통적 권위를 고수하고자 하였고, 반면에 다른 이들은 우선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옹호하고자 하고, 필요시에는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경향의 프랑스에서는, 부모들이 아동중심의 시각에서 주어지는 충고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권위, 훈육 등의 테마가 지배적이었고, 아동기의 신경증과 학업부진(특히 남아의 경우) 등도 다루어졌으며, 유익을 위한 충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즉, 국민학교 입학과 더불어 어려움이 표현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성장기 동안 스스로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부모의 기능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저, 망설임, 부끄러움 등이 표현을 억제했고, 게다가 사생활에 외부의 권위가 끼어든다는 걱정마저 있었다. 더우기, 부모학교는 중류계층과 지식층의 사업이었고, 실제로 필요성을 가장 심각하게 느꼈을 중하류계층에는 부수적으로만 스며들었을 뿐이었다.

앙드레 이징베르(1968)는 파리의 부모학교에서 제공된 아동심리학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부모학교가 개혁하려고 시도한 범위 내에서 의미심장한 변화를 발견하였다:

- 초기에는, 부모들에게 아동기의 각각 다른 단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양육태도를 그 단계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동의 비정상적인 발달의 여부를 잘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아동 자체를 다루고 그 발달과 문제점들을 다루었다.

- 1953년에는 "부모심리학"이 첨가되었다. 즉 부모들에게는 각자의 역할 속에 정서적 요구, 보상심리, 불안감, 죄의식, 그들 스스로 받은 교육으로부터의 열등감 등이 있고, 부모의 주의는 아동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 스스로에게도 향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 1954년에는 부모-자녀관계라는 테마를 택하며 이 두 접근방식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렇게 아동심리학과 부모심리학은 근본적으로 상대적이고 발전적인 가족 그룹심리학으로 통합되었다. 각 개인의 성격은 타인들을 향한 하나의 태도인 것처럼 여겨졌고, 태도는 인성과 각자의 그룹 안에서의 기능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사회적 영역, 위치, 관계의 용어들을 논하며 개인심리학에서 사회심리학으로 이동해 갔는데, 이 시기가 바로 미국의 사회심리학이 유럽에 강력하게 밀려들어오던 시기였다.

### 3.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곧 이어서 프랑스의 부모학교에는 전문가 양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초기에, 한편으로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사, 사회복지 종사자, 보육교사 등의 도움을 구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전문적인 사람들의 교육 실습에 신경쓰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1956년, 세브르(Sevre) 교육연구센터의 전국회의에서 심각하게 논의 되었다. 1959년에는 소르본느(Sorbonne)대학의 교육학과 교수진의 참석 하에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유치원 원장, 사회사업 가정방문위원, 아동담당 판사, 경찰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상담자, 캠프장 지도자 등 여러 개 직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부모들을 위한 그들의 교육적 활동을 비평하는 과정에 참석하였다. 특정한 직종을 위한, 혹은 일반 부모활성자들(parents animateurs)을 위한 교육연수 과정들이 곧 조직되었다.

일반적으로 2박 3일 정도의 연수 과정들로서, "이 연수들은 방법을 가르쳐주는 간단한 교육 정도로 여겨져서는 안되고, 각자가 자신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단체적인 연구로 여겨져야 한다. 그것들은 외면적인 것(활동을 조직, 운영하는 방법, 부모들과 접촉하는 방법, 몇몇 기법들을 사용하는 방법,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 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 사회에의 적응, 반응과 관계의 능력, 동기 등과 관련된 내면적인 것들까지 포함한다"(A. Isambert, 1968). 각 연수는 부모학교에서의 사례들을 토론하는데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족심리학과 부모-교사 관계에 관한 발표들을 포함하고 있고, 시간표의

3분의 2는 자유로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분석학이나 그룹역동성의 영향을 받은 초기의 기법들은 참가자들이 그들 자신의 태도나 동기들의 분석을 심도 있게 하도록 도와주었다. 각자는 자신의 상황을 자기 방식으로 발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반응하며, 활성자의 역할은 이해와 수용의 태도로 이 표현들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싸이코 드라마도 이 토론에 좀더 다양성과 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이 연수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애호받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상설 봉사로서, 1952년에 르보 달론느 박사(Mme le Dr Revault d'Allonnes)에 의해 소아 정신과 의사들이 부모들을 위해 교육적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파리의 부모학교는 세가지 계획 위에 그 활동들을 쌓는데에 이르렀다:

- 생활과 가족관계에 관련된 지식들의 심층화와 재집결,
- 부모교육 전문가들의 양성,
- 여러가지 형태로 부모들에게 도움을 줌.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의 불어권에서 부모교육에 관심이 있는 협회들을 모이게 하는 연구모임의 활동은 매우 미약해서, 좀더 확실한 두개의 제도적인 출현이 있게 되었다. 하나는 세계적인 계획으로서 1964년의 부모교육을 위한 국제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pour l'Éducation des Parents: F.I.E.P.)의 탄생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자체를 위한 계획으로서 약 10년 후의 부모학교 프랑스 연맹(Fédération Nationale des Écoles des Parents et des Éducateurs: F.N.E.P.E.)의 탄생이다.

F.I.E.P.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활동을 전개한다:

- 부모교육 종사자들의 정보교환과 상부상조를 위한 기회를 만든다.
- 부모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공동으로 한다.
- 국제 회의나 국제 심포지움 등을 통하여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린다.
- 이미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F.N.E.P.E.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내에서 부모학교의 창설이나 발달을 돕는다.

- 각 가입 단체들의 활동 방법들을 서로 교환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창조함으로써 가입멤버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준다.

- 연구를 하거나 연구활동을 격려한다.

- 공공기관이나 대중들에게 부모학교의 활동을 홍보한다.

- 부모학교들이나 F.N.E.P.E.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모금한다.

- 부모나 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종 단체 주변에 새로운 작업그룹 및 토론그룹을 창설하여 그들의 활동을 돕는다.

F.I.E.P.의 활동은 프랑스 부모학교의 활동과는 별개의 것이 되어서 굳이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고, F.N.E.P.E.의 활동은 주로 회의와 만남의 주최, 여러 종류의 출판물 간행, 활성자들의 교육 연수 등을 들 수 있다. 초창기의 회장이었던 티리에(J. Thiriet, 1976, p. 24)는 "... 우리는 오늘날 부모학교들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그 철학적, 이념적, 정치적 계획을 달리하는 협회들과 운동들 사이에 설치되는 만남의 광장이기도하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함으로써, F.N.E.P.E.에 가입하는 부모학교들이 모든 정치적, 종교적 특성으로부터 독립적일 것을 암시하였고, 이는 곧 이어 가입 조건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F.N.E.P.E.에 가입한 부모학교들이 프랑스 전역에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지는 못하지만(그렇다고 부모교육이 다른 기관에서는 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부모학교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이 학교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갖추고, 때로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소액의 경비로도 운영이 가능한 반면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중지할 때에는 부모학교 역시 폐쇄될 위험에 빠지기 쉽다. 20여개의 부모학교들은 종일제나 시간제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14개의 부모학교들은 뇌비르뜨법(\* la loi Neuwirth : 피임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법)에 의거하여 "정보, 교육적 충고, 가족 및 부부상담 등의 기관"이라는 규약을 갖고 있으며, 각 학교는 400시간 이상의 교육 연수를 받은 자격증

소지자를 최소한 한 명은 확보해야 한다. 고전적인 활동들 (상설봉사, 회의-토의, 강연, 도서관, 자료서비스 등) 이외에도, 전화상담서비스 (Inter-Service-Parents)나, 가족 및 부부상담원, 노인 봉사원, 장애인 봉사원, 농촌 가사 보조원 등의 특정한 활동에 관한 장기간의 교육 연수 제공, 그리고 공공 혹은 사설 교육 기관의 직원들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입문교육이나 연장교육 등을 대신 담당하기도 한다.

어떤 부모학교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명성을 얻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생 에띠엔느(Saint-Etienne)의 부모학교가 1982년부터 시작한 "학업부진의 분석 및 치료"(H. Tavoillot, 1990)는 학업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 및 그 가족들과의 일련의 만남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밝혀내고, 심리적 치료, 학업지지, 수준 맞추기, 재교육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원인을 치료하려는 프로그램이다. 학생과 그의 가족들은 몇년 동안의 학교생활 동안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혜택을 받은 모든 사례들이 다 개선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학교들은 좀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파리까지 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지역별로 연합하여 지부를 형성하여 이 지부는 교육 연수의 지부로도 이용된다.

#### IV. 부모학교의 프로그램들과 활동들

##### 1. 강의와 강연

부모학교는 여러 장소에서 강의나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강연들은 때로는 전업주부들을 위한 것이었고 때로는 청소년들을 위해 "가정생활 준비"라는 제목 하에 실시되었다.

2차 대전 후에 파리의 부모학교는 의과대학 내에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하였고, 그 내용들은 초기에는 주로 아동심리에 관한 것이었고 점차로 부모심리에 관한 것들로 향하여 가기 시작하였다. 1950년의 한 강좌는 무려 400명 가량이 수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차차 강의나 강연이 주는 신선함은

사라져 갔고, 특히 T.V.의 확산은 심한 경쟁을 야기시켰다. 드디어 1960년에 정기적인 강의는 라디오 강좌로 교체되었다. 강의나 강연에 그토록 많이 참석했던 청중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으나 그 대신에 새로운 스타일의 참여방식이 채택되었다. 토론 그룹과 "활성화 작업"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제는 강의나 강연을 통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 2. 상담

이 프로그램은 1950년대 초반부터 파리에서 시작되었다. 부모학교는 1949년부터 상담을 요구하는 편지들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매달 발간되는 부모학교라는 잡지에 한 두 건씩 답장을 실기도 하였고 그 중에서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 발송인을 기관에 오게 하였다. 1960년대 초반까지 해마다 200 내지 250명이 상담을 받았으나 무료상담이었던 까닭에 모든 부모들이 다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치료받을 수는 없었다.

상담장소는 주로 부모학교였고, 특수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보내졌으며, 긴밀한 협력관계가 심리 교육 센터, 직업 오리엔테이션 센터, 국민 사회위생 사무소 등의 몇몇 관계기관과 함께 형성되어 있었다.

1963년에 부모학교에서는 이 상담 프로그램에 부부상담도 포함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참여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고(1973: 806건, 1974: 911건, 1975: 1123건), 문제도 매우 다양해졌으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들 스스로 문제를 상담하려 오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두개의 새로운 상담 프로그램이 정착하였는데, 하나는 학교 오리엔테이션 상담이고, 다른 하나는 뇌비트프법에 의거한 피임, 낙태 등에 관한 상담이었다. 이 피임, 낙태 등에 관한 상담은 D.A.S.S.(위생행동과 사회행동 지도)라는 기관에 의해 전반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피상담자들은 서류작성비로 15 프랑만 지불한다.

1968년부터는 가족 전체가 같이 오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같은 현상은 1975년에 "체계적(systemique) 팀이 탄생하게 하였다. 의사,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법

률가, 부부상담원, 오리엔테이션 상담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 십여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각자 일 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의 상담을 담당한다. 이처럼 개인상담에서 가족상담으로 바뀌어가는 사이에, 유럽에도 "가족치료"라는 학문이 상륙하였다.

이 상담 프로그램은 현재 1회(45분) 당 약 100프랑 정도의 참가비를 받고 있으며, 액수는 피상담자의 월수입 정도에 따라서 내려간다. 그리고, 심리 및 교육 상담, 부부 및 가족 상담, 가족문제 상담, 학교 오리엔테이션 상담, 학업부진의 분석 및 치료 상담, 법률 상담, 가족치료 상담 등, 부모학교 지부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특성을 보여 준다.

## 3. 출판 활동

### 3-1). 부모교육용 월간 잡지 부모학교 (L'École des Parents)

1948년, 부모학교는 파리의 의과대학에서 개최하였던 강의내용들을 출판하면서부터 부모학교의 강연들이라는 명칭의 간행물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1953년부터는 부모학교로 개칭하였고, 강의 이외에도 연구, 앙케이트, 연대기, 새소식, 편지 등의 여러 종류의 기사를 실었다. 이 잡지는 두 수준의 독자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였는데, 한 부류는 가족그룹의 생활과 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독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일상생활에 보다 실용적이고 직접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요구하는 독자들이다.

이정베르 자마티와 위베르(Isambert-Jamati et Hubert, 1961)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관계 내에서의 변화는 잡지를 탐독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고 이는 바로 부모학교가 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조화로운 가족관계는 일정한 행동에만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잡지가 가정의 분위기를 매우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생활을 할 때에는 아주 적게 영향을 미친다.

1950년대에는 라디오 방송국의 승인 하에 일요일과 수요일에 방송되던 부모교육 좌담 프로그램을 잡지에 실었다.

제롬(Gérôme, 1974)의 조사에 의해 이 잡지가 실제적인 교육적 측면에 기여하는 정도를 볼때, 응답자 중 76%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했



고, 6%는 좀 덜 확신했으며, 8.7%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일부는 잡지의 내용이 지나치게 최근의 지식을 다루기 때문이라 하였고, 일부는 잡지의 내용이 그들의 의견과 비슷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정미리(Jeong, 1988)는 1967년, 1977년, 1987년에 부모학교에 실린 기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분포도를 보여주었다.

\* 1967, 1977, 1987년에 부모학교에 실린 기사들의 주제별 숫자

주제 연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계
1967	0	6	5	1	2	6	12	8	14	7	8	5	3	10	8	95
1977	5	9	8	0	0	2	12	17	16	12	3	3	5	16	1	109
1987	8	4	8	1	2	11	7	18	12	8	5	13	1	6	1	105
계	13	19	21	2	4	19	31	43	42	27	16	21	9	32	10	309

- a. 영유아기, 0 세부터 3 세까지
- b. 아동기, 3 세부터 12 세까지
- c. 청소년기와 청년기
- d. 노년기, 세대간의 관계
- e. 여성들의 상황, 임신 및 출산, 일
- f. 부부, 성, 별거 및 이혼, 편부모
- g. 가정과 사회 h. 학교, 교육 i. 가정교육
- j. 스포츠, 휴가, 놀이와 놀이감, 미술
- k. 도서, 음반, 출판물, 라디오, T.V., 연극, 영화
- l. 심리학,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 m. 학업 오리엔테이션, 직장생활
- n. 건강, 육체 o. 활성화 작업, 평생교육

가장 많이 실린 기사 주제들인 g.h.i.n. 은 각각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h.(13.92%)와 i.(13.59%)가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주제들이다. 1987년에는 주제 f.(10.48%)와 l.(12.38%)을 다른 연도에 비하여 훨씬 빈번히 다룬 것에 비하여, 주제 o.(0.95%)는 1967년도(8.42%) 보다 훨씬 적게 다루어졌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 중심의 심리학이나 교육학에 관한 정보제공에 치중하기 보다는, 개인이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높아

지고 있다.

3-2).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에 관한 학술잡지 가족그룹(Le Groupe Familial)

1956년에 프랑스 부모학교 지부들의 대표자 회의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부모서클과 부모학교들의 연합 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이 결정되었다. 교사들이 그들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심리학, 교육학, 가족사회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입수하기 위해서였다. 이 보고서는 1958년부터 가족그룹으로 개칭하였고, 이전에는 부모학교에 실렸었던 의과대학의 부모교육 강자들이 1963년부터는 가족그룹에 실렸고, 해마다 소르본느 대학 교육학과 교수인 드베스의 지도 하에 개최되었던 강연들도 여기에 실렸다.

가족그룹은 부모학교의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행하는 여러 활동들에 관하여 정보를 주었고, 차츰 교육연수를 받는 사람들의 작업도구가 되어갔다.

매호에는 한 테마가 정해지고, 이 테마는 심리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역사학, 교육학, 민속학 등 여러 각도의 접근 방법들에 의해 심층화된다. 그리고 그 테마에 관한 참고문헌 리스트가 주어진다.

3-3). 서적들

현재 많이 논의되는 주제들에 관하여 많은 저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 "부모학교 / 시로스(Syros)" 전집, 13 권
- "부모학교 / 카스테르만(Casterman)" 전집, 11 권
- F.N.E.P.E. 연구 전집, 13 권

그 이외에도 F.N.E.P.E.는 "벨기에의 가족연맹"이 발송한 팸플릿을 매달 부모들에게 보내주고 있다. 이 형식은 독일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Elternbriefe)와 비슷한 것으로 탄생에서 3세까지의 당신 아가들의 일기와 복잡한 아동기: 7, 8세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출판 활동은 프랑스 부모학교들의 명성을 증명하고, 또 현재 가장 활발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연구면에 있어서 이 출판 활동은 프랑스내에서 공적인 연구에 의한 계획자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4. 시청각 프로그램

##### 4-1). 라디오 프로그램

195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 라디오 방송국(R.T.F.)은 "프랑스 문화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두 번씩 부모학교에게 시간을 배당해주었다. 교육의 실제와 가정생활에 관한 주제로 10분 동안 좌담회를 갖는 이 시간은 많은 호응을 얻어서, 청취자들의 편지를 많이 받았다.

1954년에는 R.T.F.에서 6개월동안 부모-자녀관계에 관하여 부모 및 청소년들의 상담 프로그램이 매주 방송되었고, 시청자들의 편지는 단순한 좌담회 형식에 비해서 이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점점 더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강의가 라디오를 통해 계속 되기도 했는데, 그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1963부터 프랑스-문화(France-Culture) 채널과 파리 IV (Paris IV)에서 방송했던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는 테마였다. 1965년에 선택된 테마는 "현대 생활의 증가하는 복잡성 앞에서의 가정"이었고, 교육, 건강, 사회복지제도, 행정적 처리, 부적응 아동 등에 관계된 부모들의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검진해나갔다. 매 회마다 주제에 따른 전문가들이 질문에 응답했고, 이 모든 좌담회들의 내용은 부모학교에 실렸다.

이 방송들은 현재에도 프랑스-문화 채널에서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 4-2). T.V. 프로그램

1958년부터 부모학교는 미래적 교육방식으로 T.V.의 이용을 실험해보기 시작했다. 1959년에 D.P.T.F.(프랑스 T.V.프로그램 위원회)는 부모학교가 기획한 부모-청소년자녀 관계에 관한 몇 개의 방송 시리즈를 방영할 것을 허락했고, 소르본느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진이 제공했던 부모학교의 강좌 6개도 1963-1964년에 T.V.에 방영되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의해 급격히 변해가고 있을 때에 가정 내 부모의 T.V.의 침투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 4-3). 필름

1951년부터 부모학교는 필름제작을 현실화

할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1958년에 르 샤투와(J.P. Le Chanios)에 의해 "거짓말"이라는 단편 필름이 제작되었다. 제작 시에 심리학자들이 동참했고, 그 필름은 주로 부모들의 모임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미끼로서 이용되었다.

부모학교는 1963-1964년에 19개의 필름을 사용했고, 이런 종류의 필름들은 그 제작 자체가 하나의 교육적 기법이었다. 주제의 토론, 등장 인물들의 성격, 대화의 구성, 배우들의 선정과 감독 등 이 모든 것들은 활동적인 교육작업이며, 특수한 경우에 대한 토론과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등을 유도해낸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부모학교는 청년들 스스로 필름을 제작하는 경험을 해보게 하였다. 물론 반전문의가의 도움을 얻어서 필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고려하였고 이렇게 해서 1965년에 2개, 1966년에 3개가 제작되었다. 이 무성필름들은 청년들의 모임에 매우 널리 이용되었다.

때로는 부모학교가 단독으로 제작하고, 때로는 고몽(Gaumont) 영화사에 의해 제작되나 항상 부모학교의 심리학적 진단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어떤 필름은 해설이 있고, 어떤 필름은 전혀 해설이 없이 영상만 있는데, 이 해설이 없는 필름들은 대부분이 창의적인 육체적 표현을 주로 다루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도구로 사용된다.

부모학교는 이렇게 독특한 영화학적 연구의 본거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를 여러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 5. 교육연수

초기부터 부모학교는 부모들에게 가족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지식들을 알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당연히 전문가들의 협조를 필요로 했고, 기본적 과제는 협력자들을 모집하는 것이었으며, 또 이들을 가족 심리학과 그룹 활성화의 측면 위에서 좀 더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1958년의 첫 번째 연수에 부모학교 지부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부별로 발표도 하고 그룹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가족그룹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조화
- 가족의 어려움과 부모들에 의한 표현 방식

들과 그 해석

- 가족그룹의 각 멤버들의 역할
- 그룹 작업
- 그룹의 운영 방법들은 어느 수준으로 부모 그룹에 적용될 수 있나
- 부모그룹의 관찰
- 그들의 지도
- 부모학교의 방법들과 그 적용.

시간이 갈수록 이 교육연수들의 조직은 체계화되어가서 세 개의 범주가 생겼다. A 범주는 가족 심리교육학의 연수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B 범주는 좀 더 숙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C 범주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기본적인 연수를 주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룹의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이나 실험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다.

1963년에는 이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증대한 변화가 있었다. 1회의 연수는 3일간 지속되고, 7회의 연수를 받으면 하나의 사이클을 끝마치게 되고, 이러한 사이클의 종류는 네 개가 있다:

- 가족 심리학과 교육 심리 사회학에 관한 정보 연수들: 이를 통해 교육 하는 사람과 교육 받는 사람 상호간의 각종 역할과 태도를 익힘
- 참가자들의 태도를 연구하는 그룹 역동성 연수들
- 특별 대담과 모임의 활성화 문제를 심층화한 특수 연수들
- 연수생들의 실질적인 질을 관찰하고 발달시키는 최종 연수.

이 연수들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방법 제작, 평가, 연수교사와 활성화자들의 교육 등의 내부적 주요 작업이 진행되었다. 15명으로 구성된 팀이 항상 준비작업을 하였고, 1964-1965년에는 4개의 팀이 동시에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파리에만 있던 연수원도 그 지부가 몇 개의 도시에 생겨서 탈중심화로 인한 장점이 많아졌다.

그 대상은 부모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요원, 간호원, 예방분야의 강사들, 의사, 교사, 심리학자, 법률가, 상담원 등도 포함한다.

계속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발전과 수요의 증가 덕분에, 오늘날 부모학교는 프랑스 내

에서 가장 큰 연수기관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 6. 전화상담 (Inter-Service-Parents)

부모학교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1960년대까지는 부모들의 요구에 충분히 답변하고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좀 더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서 전화를 사용할 것을 생각해냈다.

이 전화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능하면 객관적인 교육적 특성의 정보를 주는 것이다. 1974년에 파리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부부 상담원, 학업 및 직업 문제 전문가, 휴가와 여가 문제 전문가, 법률가, 사회사업요원, 심리학자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자자의 전문성에 따라 전화에 응답하고 있다. 익명으로, 또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그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재, 다섯 개의 부모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질문 혹은 요구의 특성은 학업 및 직업 오리엔테이션, 법률문제들, 여가와 휴가, 각종 사회정보(탁아, 숙박, 사회보장 등), 심리 및 가족관계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파리의 부모학교에서 1987년 한 해동안 응답한 것들을 분석해보니 (Jeong, 1988) 첫번째(30.56%)와 두번째(30.25%)가 가장 많았고, 네번째(7.14%)가 가장 적었다. 그리고 월별로 그 분포도를 보았을 때에는 여름 방학 직전과 직후에 첫번째에 관한 질문이 월등히 많았고, 7월과 8월의 여름방학 동안은 모든 문의가 줄어 들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부모학교의 매월호의 편집에 최대한 반영되고 있다.

전화상담의 첫번째 프로그램인 Inter-Service-Parents 이외에도 유아상담인 Bébé-Conseil, 편부모들을 위한 Allô-Parents-Seuls, 청년들을 위한 ISP-Jeunes 등이 더 생겼다.

## V. 부모학교 프로그램의 특성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여질 수 있다. 프로그램의 특성을 좀 더 명백하게 보기 위해서는 몇개로 분류하는 것을 시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류의 기준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정미리(Jeong, 1993)가 제시한 부모교육 프로

그럼의 유형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프랑스 부모학교 현황을 묘사하고자 한다:

- a. 부모교육의 시기: 부모가 되기 이전의 시기(청소년기)부터 시작, 그러나 부모기 이후의 시기(조부모기)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 b. 대상: 초기에는 주로 중류계층의 어머니들이었으나, 현재에는 가족구성원 중의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전체를 동시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은 드물다.
- c. 주체: 일반부모들 중 훈련받은 부모들, 부모교육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
- d. 장소: 부모학교의 토론실, 부모학교의 도서관, 각급학교, 교육연수원, 마을회관, 병원 등.
- e. 내용의 수준: 단순한 정보, 여러 가지 이론을 가르치는 수업, 기술적·예술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가족관계 등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것, 인성의 기본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등.
- f. 형태와 방법: 전시, 수업, 시청각교육, 그룹토론, 개인상담, 교육연수, 역할극, 치료 등.
- g. 재정적 수단: 프로그램 참가비, 잡지 및 서적 판매, 자원봉사의 활용, 국가적인 보조, 스폰서 확보 등.
- h. 이론적 근거: 미국의 이론들을 대부분 다 받아들였으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많은 수정을 하였고, 현재는 체계적 접근방법을 각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다.
- i. 이념적 근거: 모든 정치적, 종교적 이념으로부터 독립.

위와 같이 부모학교에서는 중류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토론, 그룹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지부의 자율권을 인정하며,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체계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새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이 지나치게 인정되고 자원봉사자에 많이 의존하다보니 부모학교의 탄생과 소멸이 잦은 경향이 있다.

## VI. 우리나라에의 전망

### 1. 우리나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이기숙(1988, p.80)은 "우리나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사회교육 내지는 평생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의 역할 및 자질 향상 중심의 프로그램과,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거나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기숙의 발표 이후,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김해성(1992)은 이 두 가지의 분류 안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사회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였다.

현존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조화로운 관계 조성을 위해서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가족구성원들 중의 한 사람(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이 대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강의를 듣는 정도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대상이 중류계층의 어머니들로 편중되어 있고, 강의나 강연위주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성인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할 자기주도적 학습방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 2. 우리나라 부모교육을 위한 접근방법

우리나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첫째, 철학적, 종교적, 문화적 전통 위에서 접근해 나가며,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비형식적, 무의식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오랜 경험을 가진 외국의 모델들을 연구하되, 특히 우리나라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높은 대륙인 유럽에서 행해지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지구 상에는 여러 모델들이 공존하지만, 단지 어느 것이 어디에서 더 우세한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셋째, 학문적 연구 결과들을 그대로 이식시킬 수는 없다. 이들은 검증해 볼 가설들로 혹은 실험해 볼 모델들로서 이용될 수 있다. 넷째,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존재해온 모델들을 비평 혹은 평가하여 현존하는 것을 더욱 확장시키고, 더욱 풍부히 하

거나, 전혀 새로운 것을 제시할 수도 있다.

### 3. 우리나라 부모교육을 위한 계획

이은화(1988)는 우리나라 부모교육 정책의 방향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유아교육 진흥정책과의 연관성 유지, 둘째, 상설기구(전문기구)의 설치, 셋째, 대학 및 연구소와의 유대강화, 넷째, 부모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 다섯째, 기존 각급 학교의 부모참여 활동의 활성화이다.

그리고, 김해성(1992)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교육의 접근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교육기관의 인식의 변화, 둘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을 현실화할 때에 프랑스의 부모학교가 어떤 측면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 본 연구자는 우선 정책적인 면에서의 계획으로서, 프랑스의 F.N.E.P.E.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연맹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 연맹에는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들이 다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관들 혹은 지부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개개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국가적 연맹은 광범위한 전파망 설비와 인체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전문가 양성을 담당해야 하며,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연구도 하고, 또, 공공기관과의 관계조정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맹은 이념적, 재정적으로 독립적일수록 그 이점이 있고, 어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힘에도 굴복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국가 전체적인 연결 조직망을 갖기 위해서는 F.N.E.P.E.의 구조, 운영 방식 등을 참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VII. 제언

이처럼 프랑스의 부모학교들은 60년 이상동안 활발한 경험들을 축적해왔는데, 일정한 독단주의없이 가장 눈에 띄는 이론들을 매우 쉽

게 통합하였고, 그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 덕분에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연맹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모방하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었다.

특히 사회계층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부모학교는 중상류층의 부모들에게 적합한 모델로서 좀더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중류층 이상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수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만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가 의문이며, 그에 대한 검증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가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 김해성(1992).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미래를 향한 가정교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기획), 양서원. pp.139-171.
- 이기숙(1988). 우리나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부모교육 프로그램 탐색. 한국교육학회(편), 창지사. pp.73-94.
- 이은화(1988). 부모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부모교육 프로그램 탐색. 한국교육학회(편), 창지사. pp.119-136.
- 차갑부(1993). 성인교육방법론. 양서원.
- Châtelain, F.(1969). Initiation à l'éducation nouvelle. Paris.
- École des Parents. (1975). Un an d'appels a Inter-Service-Parents : Quelles sont les demandes exprimées par les familles. Paris, E.d.P.
- Gérome, N. (1974). L'École des Parents et vous. L'École des Parents, 9, nov.
- Isambert, A.(1968). L'éducation des parents. Paris, 208 p.
- Isambert-Jamati, V. (1958). Quelques précurseurs de l'éducation des parents. L'École des Parents, 7, mai
- Isambert-Jamati, V. et Hubert, C. (1961). Resultat sur l'enquête sur L'École des Parents. L'École des Parents, 9, nov.:

1-16

- Jeong, M.-R. (1988). L'Éducation des parents en France et en Allemagne. Mémoire de D.E.A. en Sciences de l'Éducation, Université des Sciences Humaines de Strasbourg,
- Jeong, M.-R. (1993). L'Éducation des parents: Expériences dans le monde et perspectives pour la Corée. Thèse de Doctorat en Sciences de l'Éducation, Université des Sciences Humaines de Strasbourg, 629 p.
- Tavoillot, H. (1990). Suivi et soutien scolaire : Le service consultation de l'École des parents de Saint-Etienne. Le Groupe Familial, 129.
- Thiriet, J. (1976). La Fédération Nationale des Écoles de Parents. Nos Enfants et Nous, 72.
- Vérine. (1936). La mère iniatrice. Spes.
- Vérine. (1941). Santé d'abord. Spes.
- Vérine. (1944). La famille nouvelle. Spes.
- Vérine. (1954). L'amour des autres. Paris, Bloud et Gay.
- Vérine. (1954). Les dix commandements des parents. Paris, Bloud et Gay.
- Vérine. SOS, nos santé en péril. Paris, Aubier.